

## 제24대 총학생회 출범식 일만동약인의 구심으로 우뚝서라

### “등투·총선대열에 힘차게 나설 터”

제24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지난 17일 오후 1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관에서 열렸다. 각단과대별 결의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풍물패의 걸놀이로 흥을 돋우며 행사장 주변에는 ‘민중정치의 새시대를 열자’ ‘정년동약이여’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광진(전기4), 윤오순(정의4) 총·부학생회장의 임명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총학생회 및 인·사·인·계·식, 총·부학생회장 인사말로 이어졌으며 이광진(전기4)은 “총선에서 보수야당은 더이상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없으며 1백여명의 민중후보를 내세운 이번 14대 총선을 민중정치의 단일정당 건설과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내·외 내빈으로는 이천배(경상대 교학계장) 직원노조 위원장, 교직원노조 관계자, 87, 91년 본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지석규(공문), 정우식(공문)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석규(공문)은 축사를 통해 “민중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민중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제 민중의 대변인이자 자처하는 1백만 청년학도가 총선투쟁에 매

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2부행사를 시작하기전 총학생회·문화선봉대 기획으로 합창, 율동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등투” 협상보고 및 14대 총선 투표 참여와 민중후보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이 진행된 2부순서는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 한승우(야간경제4)군은 등투 협상보고를 통해 “등투금의정결의회의 제도화, 예산공개등을 학교측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서명운동본부 발족식에서는 위원장 공미선(총학생회 부부장·철학3)이 총선투쟁의 시급함과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배포, 낭독했으며 선전스티커와 합법적 민중후보지지를 운동 참여를 위한 명찰을 나눠줬다. 한편 2부까지 회차가 끝난 뒤 3백여명의 학생들은 3부 실천행사로 후문에서의 시위와 성명서 낭독, 민중당 선거운동에 참여하기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우식(공문) 총학생회 및 각단·대 자치기구 출범식이 지난 17일 저녁대, 상경대, 법政대 학생회 연합출범식을 시작으로 18일 오후 2시 인문대학생회, 19일 총학생회, 26일 총학생회 출범식 각각 열린다. 제24대 총학생회 출범식은 19일 오후 1시 녹야원에서 노수면



◇지난 17일 대안관에서 열린 총학생회 출범식 중 총학생회장의 결의에 찬 모습.

(관경4)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걸놀이를 시작으로 I부는 민중의례, 축사, 9대 집행부 인사, 출범선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며 II부행사는 민중문화운동연합 노래부와 문화선봉대 ‘해방무엇’의 연합공연이 있다. 한편 오늘 18일 출범식 전야제는 후문에서 김은관(관경4)군의 사회로 각과 신입생 장기자랑, 상경대 노래대 ‘강철사부대’ ‘해방무엇’의 공연이 열린다. (관경4)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걸놀이를 시작으로 I부는 민중의례, 축사, 9대 집행부 인사, 출범선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며 II부행사는 민중문화운동연합 노래부와 문화선봉대 ‘해방무엇’의 연합공연이 있다. 한편 오늘 18일 출범식 전야제는 후문에서 김은관(관경4)군의 사회로 각과 신입생 장기자랑, 상경대 노래대 ‘강철사부대’ ‘해방무엇’의 공연이 열린다.

## 불상중수 지난 17일 공사돌입 ‘부처님 오신날’까지 완공 계획

겨울철 동결위험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불상중수가 총 공사비 4천400만원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늦어도 오는 5월10일 ‘부처님 오신날’(5월1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상중수는 불상 사천왕상과 석재 공사로 불교미술전시관(관경=김성호)과 진문 불상보수 업체인 경진석재가 각각 참여하여 진행됐다.

## 출판부, 인력난 심각 실무관계자 2명...사업부진

출판부가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시급한 지원대책이 요청되고 있으나 학교당국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판부는 지난 89년 ‘한국불교전서’ 10권을 출간한 이후로 이렇다할 업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판부는 한국불교전서 보류권 1권과 ‘한국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임기중·국문학) ‘한국시정경제사(조병환·농업경제학)’를 각각 4월과 3월에 출간하려 했으나 한달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일 인사발령에 따라 출판부 실무관계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출판부의 한 관계자는 “자료수집은 물론 자료교증이나 난해해 10년이상 출판부에서 근무한 3명으로도 심한 인력난을 느꼈다”며 이번 인사조치로 인해 출판부 사업은 더욱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80년대 개인과 국가교육 등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출판부 업무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어려움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조치에서 학교당국이 행정실무에 치우친 나머지 출판부 본연의 업무인 학술문화 창달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리수

관경지의 대부분이 심산유곡에 자리하고 있고, 거기에는 크고 작은 절이 있기 마련이다. 절 어귀에 들어 서면 여기 저기 암장벽에 환기를 일깨우는 구절이 눈에 들어 오기 마련인데 그 내용을 하나 들어 보면 閑人勿入이라는 말이다. “별 볼 일 없는 이는 들어 오지 마시오”라는 정도의 줄기가 필적하다. 스님들이 정진하는 선원 입구나 공양을 짓는 후원문에는 의례 붙어 있는 공평된 내용이다. 3월의 교정은 늘상 분주하

기 마련이다. 힘설의 공을 쌓아 줄음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던 그 자리에는 어느 절인가 뜻뜻한 개원공의 동자가 죽어 그 빈터를 파와 채워 주었다. 찬사와 환희 말고는 표현될 수 없는 생기찬 모습에서 젊음의 자태가 얼마나 부

뜻하여 집안이귀주의에 남용되는 일이 있다거나, 용기란 그 속성이 전진에 있다고만 생각하여 파한 행동도 용기에 서 발산된 것이요, 과도한 행동도 젊은이의 기백이었노라고 단 우겨내던 그것은 처음부터 물꼬가 잘못 트여도 한

이기는 유일한 키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집안 어느 국가에 절사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주는 여파란 얼마나 가공할 일이일까. 캠퍼스에 발을 들여 놓을 때는 최소한도 閑人이 아니고 구성원간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으며, 장래에 자기행로를 받고 넓게 기약하고 사색의 뜨파에 찬란한 금자람을 쌓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으리라 고 본다. 이런 결의가 회미해지는 순간 이미 당신은 캠퍼스 도처에서 閑人勿入이 되고 말 것이다. 崔玄燮

## 불교학과 ‘원시불교개론’강좌 문제돼 수강거부, 담당교수 퇴진요구

불교학과 학생들이 그동안 담당교수의 전공문제로 수강을 거부해온 2학년 전공필수과목 ‘원시불교개론’강좌를 맡은 조용길교수 연구실(교수회편1층)을 폐쇄시키고 파견원 전공과목 수업거부를 결의해 새학기 강의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결의는 지난 17일 오후 1시 본관(C201)에서 열린과 비상총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 다. 이날 총회에서 학생회장 김창보(불교3)군은 경과보고를 통해 “담당교수인 조교수의 전공은 불교윤리에 관한 부분이 기 때문에 원시불교개론을 강의할 수 없으며 이에 2학년생 전원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수강거부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각학년 토론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밝히는 자리에서 각학년 파견대표들은 “수차례에 걸친 교수면담과정에서 조교수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과교수들은 문제제기에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설명하고 전공수업 전면수강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날 70여명의 학생들은 비상총회가 끝난 직후 교수회관에 위치한 조용길교수 연구실에 빗장을 걸어 폐쇄시키고 교

**제34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원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 ○ 명
-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재학생
- ③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사건기자
-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지 1매(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 ⑤원서접수: 서울 3월26일(목) 오후4시까지  
경주 3월19일(목) 오후4시까지
- ⑥시험일자: 서울 3월26일(목) 오후5시  
경주 3월19일(목) 오후5시
- ⑦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동대신문사 —

## 올바른 한표행사를 위한 기획광고

# 당신이 심봉사라면...

갖은 학대와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했던  
 뺨덕어미와 재혼하셨습니다  
 지난 광역선거에서 20·30대층의 기권을 47.5%  
 총유권자의 58%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여러분의 뒷짐진 모습은  
 뺨덕어미를 도와주는 ‘하나의’정치적 행위입니다

## 동대신문사

사설

학생대중에 기반한 등투

입학자재의 등록금협상을 진행시키면서 학교당국과 학생측은 팽팽히 맞서는 줄다리기를 계속해오다 지난 12일 학생측이 재단 이사장실은 접거하는 사태까지 비화되었다. 접거 7일째를 맞고있는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4대 총학생회는 오는 24일 총선이후로 집중기로 접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총학생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등록금부담경감의 오류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협상위주의 투쟁을 벌였음으로써 파·단대학생회에 기반하지 못한 상층중심의 투쟁이 진행됐다는 점, 둘째 일부 단과대가 학교당국과 독자적인 협상을 가짐으로 인해 단일한 대외가 호드러져 자체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 점, 셋째 재단혁신의 원칙에 입각한 투쟁을 내성적으로 추동시키지 못하고 일관된 상층위주의 정치동선은 하부단위의 실정과 고민이 파괴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이다.

한편 학교당국은 등록금 협상자체를 근본적인 재단전입금 확보와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에 두지 않고 몇몇이나 부기요구안을 수습하는 선에서 등투를 마무리 지어 놓고 있어 학생측과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견을 보임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

는 상태다. 또한 학생측의 자체분열상을 빌미로 등록금협상을 신속히 마치는 기본적인 구도속에서 지금까지의 협상을 진행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당국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서러한 학생측이 주장하는 실질 책임자의 협상참여를 받아들여 학내민주주의의 합의를 거쳐 등록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학교발전의 장·단기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재단활성추진위원회(가칭) 및 등록발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제시없이 학생등록금의존을 확대를 통한 학교운영은 더 이상의 실력을 구하기 어려운, 단일한 발상임을 학교당국은 자인해야 한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태에서 학생측은 각 단위의 실근 조사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복지요구안의 제시와 새로운 정책생산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총선이후 일정수에 상정된 전체학생대표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즉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바탕을 두면서 학생대중을 중심으로 세워내는 동시에 등투를 끝까지 책임지는 제24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내부대외의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14대 총선의 의미

이제 14대 총선의 날을 일주일남짓 앞두고 내 한표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먼저, 전국적으로 달아오른 선거열기가 민의의 고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타락과 관공제 등 부정·부패선거를 연쇄하는 정치권들의 타락상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형국에서 어간 격정적이지 않다. 게다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부패선거의 공약남발,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니 접점 많은 국민들을 정치부패선 내지 냉소주의에 함몰하게끔 하는 것일까 또한 심히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책임주의에 집착한 기성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대권을 내세운 민선조직적인 표본이 작태는 정심 한심하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속으로 선거권에서 뒷전에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다. 대학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패자부표신고 폭력과 공명선거에 대한 감시활동 등 적극적인 차원에서 관심 고조는 더 노골적으로 실행·실천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선거결과와는 어떤 무엇을 담보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완성에 중요한 관련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며,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역량의 실제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민의를 저버린 3당통합 등 기존정치권에 대한 단호한 경종의 기치가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3대 총선결과 소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우리는 그나마 여러 개혁입법과 악법개폐 등이 활발해지면서 지난간 정권에 대한 청산의 후련함과 새로운 정치구도를 통한 의회민주주의의 확립과 비로소 정권교체의 기대감으로 충만하였다. 하지만 민의를 도외시키고 강행한 여야제도권 정치권의 구도개편으로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개인적 정치생명의 연장과 기득권의 유지에 인간됨을 쓰면서 또다시 쟁쟁한 지역적 갈등과 민의의 왜곡이 심화되고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암담한 현실뿐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한번 현명한 선택을 감행할 때가 왔다. 주권의 존엄함을 보여줄 때가 왔다. 여하한 무기력·부패정신을 떨치고 진정된 민주화를 위한 선거투쟁을 도모하자. 슬기롭고 이성적인 자세로 투표소로 나가 신성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그 어떤 불의의 벽도 극복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피끓는 청춘을 돈뎀푼과 바꾸지 말라

선거아르바이트... '사회의 양심' 저버린 행위

이땅의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자주,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선봉에서 서서 달려왔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배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정열은 역사상의 사실로 익히 알 수 있다.

45년 해방이 아닌 해방을 맞이하고 이승만정권이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이땅의 자주와 민주를 짓밟는 정권들이 수립됐을 때 그에 맞서 투쟁했던 이들이 바로 선배청년학생들이었고 지금도 또한 그러하다. 4·19혁명이 그러했고 유신정권 시절에 그러했고 가까이엔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그리고 지난해엔 5·6월 투쟁이 그러하다.

우리의 선배님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탄압과 억압속에서도 수많은 투쟁을 했고 적어도 그들의 양심만은 지켰다. 다시말해 적어도 그들은 몇만원에 팔려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

다.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서 오늘날의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흔히 말하는 행동대원은 정치경제가 주류였다. 그들은 정권일에서 유권자 유류, 협박, 선동에 앞장섰고 후보를 위해 어떠한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4·19 전야 고대앞에서 벌어진 정치경제의 학생집단 폭행사건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 사회를 망들려 하고 가족과 이웃, 민족과 조국을 팔아 도탄에 빠뜨린 무리들의 하수인이다. 아니 정신은 없고 몸뿐인 절이다니는 물체나 다름없다.

이러한 정치경제가 지금 바로 '사회의 양심'이라는 학원내로 침입하고 있다. 주먹을 휘둘러서 유권자를 유향하는 것만이 정치경제가 아니다. 바로 돈에 팔려서 자기의 양심을

열린글터

특약어려운 생각이 담겨 있는 글, 사진, 만화를 발송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의는 260-3491-2로.

등록금은 치솟고 실습비는 제자리

예술대, 복지시설 및 공간 가장 부족

예술대 등록금은 89년부터 실시된 계절별 차등제로 인해 타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타단대학의 등록금 차액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 실습실습비는 91년도에 3천원이 인상된 것이 고작이다. 현재 신입생들의 등록금 차액은 3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면 1년만에 차액은 50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강의내용이나 강의실은 타단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 여학생 등록금의 차액은 30만원이 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습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차액만큼은 모두 예술대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제반복지시설과 공간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예술대학이다.

이에 학생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학교측은 학년기중재와 학생기중재의 차액인 2천5백만원을 예술대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하지만 실제 명확한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았으며, 타단대학의 차액은 예술대 발전기금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학년기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년만에 신입생 등록금은 1백80만원에 달하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든 예술대학의 등록금만 아무런 이익없이 비싼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학우들 사이에선 '예술대가 학교의 봉어구구'라는 자존심 쉼인 비아냥거림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예술대는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학년기중재를 정취한다. 둘째, 기간에 부당하게 당해왔던 복지요구안을 관철한다. 셋째, 매해 동계학원 회의에 예술대 대표가 참여한다. 이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예술대는 끝까지 정진할 것이다.

황우현 (예술대 연영과)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만화 '찰개구리'

등투-총선에 무감각한 학생들 꼬집어

3월11일자 8면의 네컷짜리 만화가 가슴에 잘 많이 남는다. 고도의 응축 속에서도 풀이 놓이면 사랑이 흥건할 것 같은 많은 이야기들, 만화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등투-총선이라는 우리앞을 가로지른 대가 술과 함께 널부러진 우리의 의식속에서 메뒹되어 간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세상은 우리의 술마심을 정당하게 해준다. 또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끔찍할 때도 있다. 술기운이 날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위안을 주기도 한

다. 하나 한순간의 환희가 지나고 나면 남는 건 다소의 파장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고 흥분시킨 속취뿐이다. 이런 생활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필름을 반복해서 틀어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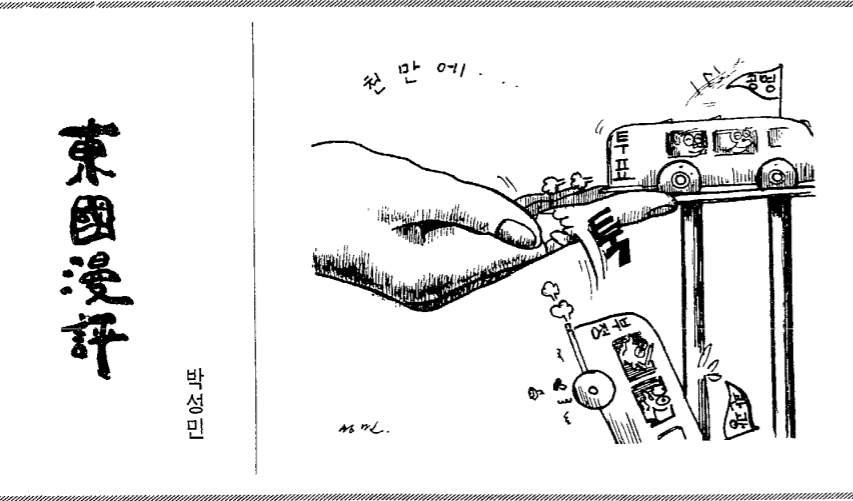
대하 것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이 할 일을 찾으라고 조언해 주셨다. 당시엔 그말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지 못했다.

요즘 술과 격정을 벌이고 있는 동거나 후배를 바라보면 서그 답답이 스며들면 미어저 나오는 느낌이 든다.

할일의 대상이 이른바 학생운동이든, 공부든, 연예든, 종교든, 몰입하게 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단, 내가 돌아서지 않는 한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무상한 대상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이 우리 젊은 날을 행하니 죽 내지 않고 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효정(불교대 불교학과)



東國漫評

박정민

동학 광장

목 먹 골

- 축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 최순덕(철학'90)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극회원 일동
■국문'91의 시범야 보영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국문'91 일동이
■17일 미선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불 기현
■종영이형의 스물두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후배가
■3월의 맑은 하늘에서 선녀 소영이와 설니가 배추를 가득 안고 내려왔어요. 또 선남 상행이형과 정익이 그리고 내가 이땅에 떨어졌어요. 모두를 축하해요. -두동이 배추
■항상 조용히 자신의 일을 완수하며 남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새침페기 주현이의 생일을 진짜진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일문'90
■동생'92 성세라, 허경원씨 생일 축하해요. -주현, 중우
■언어를 연주회를 축하합니다. -어느학우
■영화(물리'91)군이 민중사랑의 화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P.P.

- 환영합니다
■만화원 7기 신입생 여러분! 입회를 축하드리며 힘찬 동아리 생활 당부합니다. -쌍이
■선무부 72기 신입생들의 입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무부 71기 일동
■농연 새내기를 환영하며,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우려 노력하거나 아름다운 신입생을 민중미학연구소가 기다립니다. 이 사회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고민해요. -민중미학연구소 귀동들이가
■알립니다
■성보고등문화가 내일(19일) 열립니다. 재학생과 부학생 및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화공동체 디딤돌에서는 신입생 환영 영화제를 띄웁니다.
·연제:오늘(18일)과 내일(19일)
오후2시-팔찌부터 일동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
오후4시-Grand Eleu(커다란 푸른 빛)
·어디서:추후공고

-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일에 전념하는 혜진이를 격려합니다. Feminism의 선구적 여성인 혜진이를 사랑합니다. -영문과 친구들
■林'90
우리모두 새로운 도약을... -young
■김성욱(수학'91) 보아라. 열심히 생활하는 너의 모습이 보고 싶구나. -장국영(농생'92)
■인화과'91 동기들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따뜻한 가슴으로 모두를 포옹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허허부부를 열심히 살자꾸나. -사랑하는 '91 한동기
■林'92에게
학교생활에 따른 적응을 바라며 진정된 맑은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가능하게 바란다. -'91
■어실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교육학과 '92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9 갈철

- 윤리학과 새내기에게
대학의 첫발을 떼게 내딛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그 어느 후배들보다 훌륭한 후배로 성장해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겠습니다. -순디
■민중문학의 세계대 동국문화회 92학번 햇내기들의 맑은 미소속에서 우리라는 찬란한 글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고민하며 씩시다. -희장
■그리고...
동국사예전을 빛내주신 교수님, 강사님, 선배님, 후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성진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다. -교육'92 정호범

은방골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보여드립니다. 3월19일 오후5시 소강당. '봄을 여는 시낭송회'에서요. -동국문화회

팔아먹고 더 나아가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를 늦추게 하는 것 또한 정배인 것이다. 소위 지식인이라는 대학인들이 군사쿠데타의 주역, 유신의 잔당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팔아넘긴 3당연합의 주인공들을 위해 돈을 팔러 그들의 바람막이로 나선다면 이것보다 더 애용하고 반민족적인 행위는 없을 것이다. 청년학도여! 우리는 피끓는

술에 찌들지 않은 새내기가 좋아라 선·후배 함께하는 자리 필요

개강을 하고 벌써 3주째, 바람이 아작은 차갑지만 동아교정을 든든하게 메운 새내기들의 순진한 웃음으로 따뜻해진다. 새내기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학생회, 동아리, 동문회 등은 새내기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거기에서 과거에는 학내대면식을 개최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이런 약속들로 수험 빈칸은 꼭 차버리고 새내기들의 얼굴에선 풋풋한 싱싱함 대신 슬픔이 가득하게 풍기기도 하는데...어휴, 남학생들이야 약으로 강으로 버티지만 여학생들은 술자리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면식, 환영잔치 어쩌야 할까. 진술한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의 자리여야 할 것이다. 선후배의 단순한 만남보다는 파란과, 동아리리엔 담요 나뭇대로의 특성을 담으며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새내기들의 참여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새내기들을 맞아 선배들이 준비하는 자리라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좋은 선배상이나 누러보고 대학생활에 대한 앙케이트를 한다든지 해서 발표시키는 등 방법을 찾아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한가지 단점이라면 준비하는 일꾼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회의 새주인으로 담당하게 선 새내기들을 맞이해 처음 벌이는 사업인 만큼 술을 마시는건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술은 조금만...그리고 어떤 노래, 놀이, 얘기를 나눌 것인지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요구된다. 시작의 달 3월, 술에 찌든 얼굴보다는 상쾌한 얼굴로 지내자.

김영주 (사법대 국교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명순식 할머니. 새벽 정각원을 찾는 불자들에게 보살 할머니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올해 65세인 명순식(가) 수속의 유령 할머니이다. 불교의 이름이 '보명'이라는 보살 할머니는 매일 신림동 자택에서부터 학교 정각원까지 새벽 6시에전에 출근해 법당을 돌고 돌고 등 정성을 들인다. 보살 할머니는 매일 새벽 교문을 지나오면서 학생들이 오늘도 편히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며 소박하게 웃는다. 매일 새벽 일찍 나와야하는 수고와 나이에 맞지 않게 노동량이 많아 힘들지 않냐는 질문엔 "그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며 보살할머니 자신의 불심을 강조 한다. 지금하고 있는 일이 순수한 불심의 발원이라는 보살할머니는 자신의 몸이 유적일 동안은 쉬지않고 이 일을 계속 할 것임을 밝힌다. (조용수 기자)

- 오는 20일 대변회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갖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은 많이 여수로 많이 참석해 주시구요. -경영학과학생회
■에이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 5원권을 잡으세요. 5원권이 뭐냐구요? 와서 물어보세요. -동국북링
■참신하고 씩씩한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3층으로 오세요. -신안부
■풍물놀이를 아십니까. 그럼 '어울노리'는요. 자! 이제 배워볼까요! -풍물패 '어울노리'
■야학으로 함께할 미녀와 야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면 좋겠소. -대자원봉사단
■모여라!
여의도고·여고 동문들은, 이디나면 원호관 휴게실, 시간은 오후5시. -도고·여고동문
■Seven Glass의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매일 오후5시이후 원호관 옥상 동아리방으로 오세요. -Seven Glass
■인권복지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인복위교문
■내사랑 경아!
시간내서 따뜻한 내방에서 담담하게 술이나 한잔 정담게 열정을 담아서 마시자! -내사랑 주아
■육경이형 /
앞으로 건강하시고 저회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찍 나오셔야돼요. -형을 사랑하는 미운오리

기획연재

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

# 정체된 '내일' 누가 만들었는가

김 중 배  
(언론인)

나는 조건부로 "학생운동은 사회적 발기"라는 김용옥 교수의 이른바 '발기론'에 동의한다. 학생운동은 분명히 정의를 위한 젊은 발기이다. 그 사회적 발기는 유효하다. 그것은 4·19와 6·3과 6월항쟁의 역사만큼으로도 넉넉히 입증된다. 그리고 그 사회적 발기는 앞으로도 불거지고 또한 유효할 것이다. 유평파이란 이미 '없는 땅'의 이름이다. 뿐만 아니라 유평파이는 정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정체의 높은 스스로 사회적 발기를 요구하는 불의의 온상이기 십상이다. 변화가 없는 유평파이는 그 자체가 거부되어야 할 대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주체인 학생은 언제까지나 학생일 수 없다. 주체의 연속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주체의 단절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은 여전히 사회적 발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주체의 단절성과 발기의 연속성이 다른 운동과 구별되는 학생운동의 징표이다. 학생운동은 변혁의 회일과 출산을 촉진하지만, 변혁의 회일과 출산을 스스로 완결하지는 못한다. 4·19가 혁명이나, 외기나로 논란되는 것도 그때문이다. 그러나 회일과 출산의 자기완결성이 없다는 징표가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담보한다는 학생에도 유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회적 발기의 순수성은 미래를 위한 발기이며 기대이기도 하다. 그 발기가 내일로 이어지고 마침내 그것이 변혁의 회일과 출산을 성취하리라는 믿음과 기대는 어떤 과정과 방법을 끌어올 필요도 없이 가슴 설레이는 일이다. 정의와 자유의 평등과 민주를 위한 젊은 활기는 언제나 우리의 내일을 낙관케 한다. 내일은 젊은 그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간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온 무수한 내일은, 지나간 어제와 오늘에 낙관했던 그 내일은 아니었다. 내일은 나날이 밝아 왔으나, 그것은 어제와 오늘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관했던 새날의 내일은 왜 밝아오지 않는가? 부패와 오염의 현실은 왜 내일과 그 내일에도 이어지는가?

답변은 명쾌하다. 4·19선언문을 기초했던 바로 그 사상이 군부정권의 연설문을 기초한다. 6·3의 그날에 항일을 절규했던 바로 그 사람이 굴욕외교의 대열에 참여한다. 그리고 6월항쟁의 그 사람이 바로... 차마 그 이상을 속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변질과 전향의 참담한 역사를 굳이 되뇌이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러나 어찌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우리가 살아온 내일의 정체가

- 차례
1. 대학의 지위와 역할
  2. 사회를 올바르게 보자
  3. 사회변혁의 멀고 긴 대장정



◇ 지식인이 민중과 함께 서지 않고 전과와 지표를 얻기 위하여 피땀 흘려 전향한 전사나 퇴역군인 수백에 달한다.

## 술한 변절과 전향...사회 정체 원인

참했던 그 정념을 부패된 사회의 오염에 쏟는다. 오염의 적용에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행동하는 지식인이, 행동하는 지적 기능공으로 전락하고 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 30년 해 이어져오는 군부정권의 간지는 그 누구로부터 공급되어 왔던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공급원은 지적 기능공들이었다. 그들이 지배와 억압을 위한 정책과 법률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나는 고지식하게 바른 지식인은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을 터이다. 오히려 비유를 빌어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 까뮈는 그의 소설 '베스트'에서 한 지식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다.

"그는 선의의 증언자에게 신중함을 지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회생자의 편에서 서서, 시민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확실한 것—즉 사랑과 고통과 추방에 동참했다.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상황도 자신의 상황이 아닌 것은 없었다."

단호히 회생자의 편에서 서서, 호소하고자 해도 호소할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맡아 나서는 기개가 까뮈의 바른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라. 이 땅의 무수한 지식인들—그 가운데는 학생운동의 기수였던 이들도 술한 터이다—그

바식한 지식인들은 권력과 자본의 불의에 어쩔한다. 굴복한다. 마침내는 그들 스스로가 불의의 권력자, 불의의 자본가로 군림한다. 따라서 먹물이든 지베세력의 억압은 갈수록 강고해질 수 밖에 없다.

이른바 학생운동권 출신들의 놀라운 오염 적응력을 술하게 목격해 온 나는, 바로 그때문에 '차라리'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학생운동은 물론 유효하다. 앞으로 유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유효한 발기가, 사회인이 되자마자 불의를 사정하는 것이라든, '차라리' 학생운동의 전력을 생략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사회인의 옷과 마음을 입고 난 이후에 정의를 위해 발기하고 회일하고 출산하고 편이 더욱 유효하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언론이, 발기의 정의로 회일되고 출산되었던들 적어도 오늘과 같은 물결은 아니었을 터이다. 오늘날도 충선의 현장에서 이제까지 '군부정권 타도'를 절규하던 군상이 그 대역을 자임한다. 사회정의의 외치던 군상이 제벌의 주주가 되어 우리의 노동자들을 박해한다. 모두가 '내 탓이오'를 들먹이며 죄악의 비중을 회색하는 전열에 앞장선다. 그리고 왜곡과 조작의 언론을 절타하던 군상이, 오늘은 스스로 왜곡과 조작의 기능공으로 떨어져 간다. 오히려 그들의 명기를 자랑삼는다. 때문에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일

을 볼 때도 삼보의 언덕, 우리의 동국에 새내기들의 싱그러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들 새내기들의 목소리에는 순수함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있어 마와 불기운을 품고 있는 동양의 꽃말을 금방 터뜨려 줄 것만 같다.

대학은 이상의 세계를, 꿈의 세계를 그리는 곳이다. 생명력이 있고 가치가 인정되는 자신의 설계도를 그리는 곳이다. 그러기에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의 기간이 자기 인생의 전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48개월이라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알차고 참된 생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기인 것이다.

## 교수/칼럼

### ③ 자랑스러운 동국인

# 한국의 정신문화 이끈 전통사학

전환기인 것이다.

대학은 하나의 소유주로서 그 자체 고유한 정신이 있고 조직과 제도는 몸이 있다. 그러기에 대학은 사회와 역사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인 것이다. 이러한 생명체 속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보내는데 있어서는 우리의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자긍심을 정리하여야겠다. 그리하여 자랑스런 역사, 오늘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 숨쉬게 하여야 한다. 동국은 오는 5월8일이면 86주년을 맞이하는 전통있는 사학인 것이다. 86년전 불교도들이 스스로의 힘을 모아 보살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撫仁, 信實, 慈愛, 度世'라는 교훈으로 세운 민족앞에 한걸음도 뒤처지지 않는 민족사학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국의 설립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위대한 동국인이었던 만해 한운운의 시 '보살'과 '나뭇매와行人'은 바로 우리 동국의 설립정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분단에서 차지하는 동국출신의 문인들의 과거나 현재의 활동에서 한 단면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기증하게 하는데 공헌을 한 것이나 정경나 학계, 기타 경제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에게서도 또한 자긍심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불교가 주는 정적인 이미지와 보수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 동국도 보수적인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학과 개설이나 동아리활동에서, 연극영화, 경찰행정학 등 학과의 개설, 산학부의 설치등은 우리나라에서 맨처음이라는 면에서 학문의 연구나 활동에서 그 진취적인 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동국은 보수와 진보의 조화가 어우러져 전통 속의 안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를 양성하였고 양성하고 있다는 면에서 자긍심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동국이 갖는 과거의 화려했던 선배들의 역사만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에 안주하는 슬픈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우리 새내기들은 우리 동국의 새 가족으로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물론이거니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 자긍심을 지극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몰초하는 대로 살아 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의 주위에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일류·이류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속에서 속명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인 우열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자기노력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내일의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으로서의 자긍심과 이를 지키려는 노력에 의해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다. 요새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는 식으로는 안된다. 급변하는 오늘의 역사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뛰어들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리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로서의 승기와 용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 동국의 건학이념의 근간이 되는 불교는 무한한 포용력을 갖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이제 우리 동국의 운가죽은 서로를 격려하고 포용함으로써 우리 동국에 대한 자긍심을 지켜 민족대학에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키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봄에 피어날 동국의 꽃길은 탐구심 빛나는 발길이 찾아 드는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운 숲이 되었으면 한다.

박영길  
(법학과교수·상임)

## 알고 넘어감시다 도서관 이용-어학특강

신입생들에게 비취던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대학을 마치 인생의 종착역처럼 생각하듯 걸어들어간 신입생에게는 모든게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사랑이 꽃피는 나무'나 '우리의 천국'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곳만은 아니다. 대학은 자신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간이역'인 것이다. 때문에 독서와 어학공부에 틀림없이 힘써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신입생들이 꼭 알고 넘어 가야 할 중앙도서관 이용방법과 학부에서 실시하는 어학특강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앙도서관의 이용방법을 보면 일반대출실(1층)은 외국도서와 전집류, 교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출은 허용되지 않고 복사만 가능하다.

과제도서실(4층)은 전공학술도서, 비특, 소설류와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가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출장구

에 비치된 서명순·저자순 목록과 듀이십진분류표를 참조하는 게 효과적인 이용방법이다. 도서대출은 한번에 3권까지 가능하며 10일 내에 반납장부에 반납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실과 학위논문실(2층)은 국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신문포함)을 소장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 석·박사 학위논문이 있어 학과 전공분야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복사만 허용된다. 또 불교학자료실(1층)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일반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대출방법은 과제도서실과 같다. 이외의 일반열람실(3·4층)은 학습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어학특강에는 TOEFL, Vocabulary, 통역가이드 특강이 있고 30일부터 실시된다. TOEFL(L301)과 Vocabulary(LA01)는 2달코스로 1년에 총4회(학기중 2회, 방학중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수강료 한달에 8천원) 통역가이드 특강(L401)은 7개월코스로 A, B, C반으로 분리돼 1주일당 3일간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실시된다.

이 특강은 팀당 8명씩 구성, 통역가이드와 영어회화(듣기위주)를 각각 1시간씩 강의하며 토요일은 A·B·C 통합반으로 영어문법을 강의한다. (수강료는 한달에 10만원)

한편 외국어교육원은, 음향독서실(교수회관 2층 LAB실 옆)에 외화·어학·테이프를 비치 해 외국어 회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할 때는 차량증(주차기 이용가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인제라도 학생증과 수수료 3천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부)

## 작은 소식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

### The Dongguk Post

- 시 험: 1차-면접, 2차-영어·국어논술
- 원서접수: 3월 20일까지(본사편집부)
- 시험일시: 3월 20일 오후6시
- 경주 26일 오후6시
- 시험장소: 서울-학생회관 지하 동국포스트
- 경주-동대신문사
- 문의처: 260-3493(서울), 41-4132(경주)

### 교육방송국(DUBS)

- 시험과목: 제작부(수필, 음악 상식) 보도부(논술, 음성테스트) 아나운서부(음성테스트, 우리말상식) 기술부(기술·음악상식) 공통과목(일반상식, 인성테스트, 면접)
- 접수기간: 3월 19일까지(학생회관 4층 DUBS)
- 전 형: 3월 19일(목) 오후5시, 학원관(J305)
- 합격자공고: 3월 23일 이전
- 문의처: 260-3495(구내전화 3495)

### 교재 편집위원회

일정 및 전형방법: 추후 공고

### 언론협의회(건준위)

## 92학번 새 일꾼을 찾습니다

# 펜 하나로...

세계를 변혁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펜 하나로  
자기를 변혁시키고  
넓은 학문과 사상을 갠다면...  
내일은 밝아 옵니다

## 동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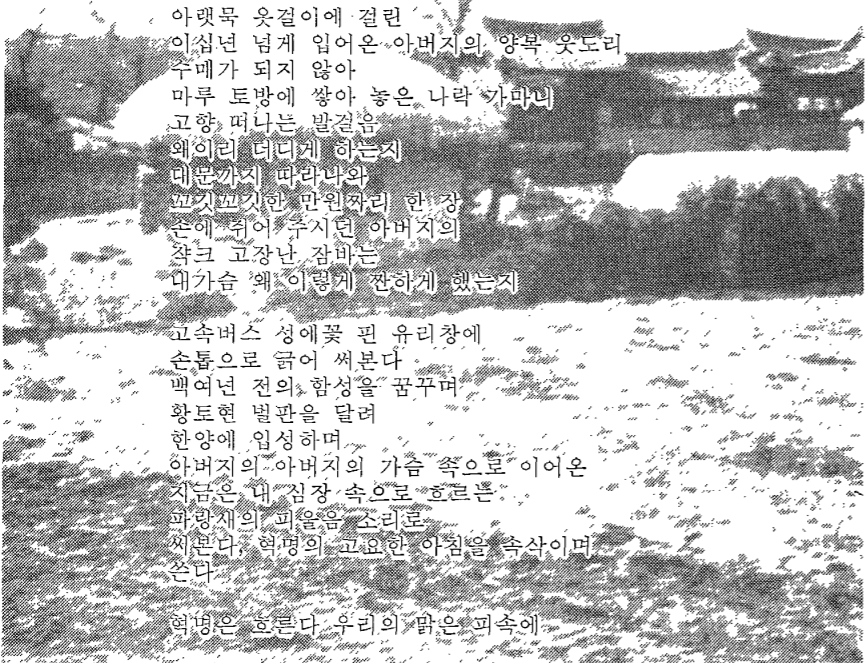


### 고향길

김선식(야간강좌 경영학과)

칠개월 만에 내려간 고향길  
어릴적 설날의 설레임은  
어디론가 꼭꼭 숨어 버리고  
미리내 밤별들  
고향마을에 밝은 눈물 떨구면  
몇몇 노인네들의 기척소리와  
겨울 허공을 짓는 개소리

아랫목 옷걸이에 걸린  
이십년 넘게 입은 아버지의 양복 옷도리  
주머니가 되지 않아  
마루 토방에 쌓아 놓은 나락 가마니  
고향 떠나는 발걸음  
왜이리 더디게 하느니  
대문까지 따라나와  
꼭 잡아주는 만원짜리 한 장  
손에 넣어 주시던 아버지의  
작은 고장난 잠바는  
대기술 왜 이렇게 잔하게 했는지



고속버스 상에 꽃 핀 유리창에  
손톱으로 긁어 써본다  
백여년 전의 함성을 꿈꾸며  
창도현 발판을 달려  
한양에 입성하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가슴 쪽으로 이어온  
지능은 내 짐장 속으로 흐르든  
마침내의 피맺음 조리로  
세는다 허명의 교묘한 아침을 속삭이며  
준다

역행은 흐른다. 우리의 맑은 피속에

# "조선장이 몰아냈다는 거야"

## 영화평

## 김의 전쟁

영화 '사랑과 영혼'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직배(직접배급) 영화가 배급과 흥행에 있어서 한국의 영화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권제일로의 한국영화는 올해 들어서도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야심작-이강호 감독의 '명자, 아끼고, 쏘', 배창호 감독의 '친구의 계단', 안재식 감독의 '비치런 음악처럼' 등이 흥행의 참패는 물론 작품성의 평가에 있어서도 냉대를 받고 있다.

보다는 더 재미있는 현실의 진행에 집중되리라는 예상은 제작자들의 제작의지를 더욱 위축시켜 올해 제작될 한국영화는 예년의 1백여편으로 30~40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화 '김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영화적 상황속에서 지난 해말 개봉된 영화 '경마장 가는 길'에 이어 올해 한국영화의 흥행과 작품성에 맥을 이어준 작품이라 볼 수 있다.

했으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자 인절극을 벌이고 현재까지 무기적응으로 부여중인 제 일종로 2세 김희로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한국인이라는 신분상의 불평등과 야쿠자들의 조직적인 폭력속에서 절망으로 내몰린 끝에 인절투쟁을 벌이는 김희로를 유인촌 씨가, 그를 사랑한 여인 후사코역을 이혜숙씨가 각각 맡아 열연하고 있으며, 임권택 감독의 오랜 조감독이던 신에 김영빈 감독의 힘있는 연출력이 화면구성의 혼돈함으로 드러나고 있다.



◇영화 '김의 전쟁'은 일본에서의 한국인차별과 야쿠자들의 조직적 폭력속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자 인절극을 벌이고 현재까지 부여중인 제일종로2세 김희로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 진지한 소재접근...국산영화 작품성 맥이어 미적·낭만적 효과 노린 아오모리선 도움 안돼

작을 하고 일류의 감독, 배우, 촬영시스템을 이용하고도 여전히 이 편제로부터 외면당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놓고 영화업자들은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전진공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흥행을 위시한 선거의 해에 관객들의 마음이 영화

진사실을 붙이는 이유는 영화 '김의 전쟁'이 속해 있는 한국 영화의 현실상이 작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사코의 고향선은 아름다운 경치와 낭만적 요소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스토리나 구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김희로의 스타일링이 다소 지저귀어서 유인촌 씨의 열연에 비하면 극적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등 부분

적으로 아쉬움이 드러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최근의 한국영화가 대작과 특별한(?) 기획 등 야심적인 시도의 요란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성과 흥행을 놓치는 현실속에서 영화 '김의 전쟁'은 진지하게 소재에 접근하여 영화를 잘 만드는 평범한 시도와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한국영화

이 은(영화인)

### 탈해상장에

## 歷史再現

목 정 배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생애의 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일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茶飯事)가 보통이다. 그러나 이 차 마시고 밥먹고 하는 일이 보통일인 것만 이것이 예사 일은 아니다.

흔히 역사가 무엇인가 할때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다만사속에 형성되는 일들이 역사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건들이 축적되면 역사가 된다고 해석하여도 틀린 말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이 하루하루 살면서 벌스런 일들이 일어난다. '사건'이란 의미로 부각되는 것이다. 사람의 오장을 함락 놀라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인간이 아끼기하는 사건들은 몇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기 위하여, 먹기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애욕을 구하기 위하여, 부를 취하기 위하여 등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간결히 표현하면 주조건이 의식주이고 종조건이 잡다한 사건으로 형성된다고 하겠다.

아무튼 인간사는 참나에 일어나고 순간에 사라지고 말지만 이것은 하나의 궤적을 남긴다. 이 궤적이 역사의 원점이 되고 이 원점을 적절하면 역사적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큰 사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들이 행화한 모든 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다. 민초들의 일상 생활에서, 정치가 종교가들의 전문성의 사업들이 역사적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등

아리의 상의소리, 사진찍기, 장하기, 목탁엽 불, 용원연습 등 모든것이 대학생활의 낭만으로만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존재 형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일회성, 일과성의 기능을 하고있다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대학의 생명체는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축적외로 기능하여야 한다.

대학에도 허부에 슬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진행된 행위, 감각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눈여겨 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일과성의 행위로 침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병폐다. 어떤 일이 일과성의 사건이었다하더라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에서, 백상의 집에서, 동아리방에서, 대학본부에서,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일어나고 소멸되는 모든 일들을 하루하루 써나가는 기록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사의 일, 보통의 일, 흔한 일의 모든 일들을 시간남비, 인력남비하면서 기록할 필요가 없고 수집할 필요가 없다면 대학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조망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일기 비망록이 자서전, 전기들 쓰는데 필요한것처럼 대학사를 쓰는데도 대학신문에 기록된 사항만으로 대학사로 쓰는데 안이한 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대학 행정처에서도 일지는 써야 한다. 일지는 대학역사의 기본자료가 된다. 이 일지가 교사편찬실(校史編纂室)에 옮겨지면 생생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의 역사를 쓰는가.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 보기 위한 회고풍인가. 아니다. 역사기록은 오늘날 대학의 미래에 창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역사에 의미를 두려는 자는 오늘 일어난 사건을 수집하는 원초적 기록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게을리하는 대학은 미래의 도약이 미약할 것이다.

## 해인사 숨결 느끼게하는 흔적

### 서평

## 해인사지

### 이 지 관 지음

(가산문고·1261쪽)

사찰의 사지(寺誌)는 불교학·사학·문학뿐 아니라 금석학 연구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따라서 사지편찬은 이 분야연구에 도움을 주며 인텔린 사료의 복원, 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특히 유서깊고 국보급 문화재가 봉안된 사지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에 『伽耶과 海印寺誌』가 본교 선학연구소인 이지관박사에 의해 편찬되었다. 그동안 해인사는 1천2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海印寺古蹟』이란 목판 20여장을 제외하고 사지다운 사지가 없었고, 게다가 모든 사료가 인멸되어 그 아쉬움이 컸다. 이에 저자는 20여년간 걸쳐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사서와 개인문집, 신문, 잡지 등에서 발췌한 사료를 2년간의 연구와 고증 분석을 통해 4·6·6판 1,2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사지를 상재한 것이다.

이 책은 현대적 감각의 체제로 되어 있다. 권두에 50장의 화보를 실어 보는 이의 시각적 이해를 돕고 서술된 내용에 관계자료를 명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또 대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쉽게 보도록 했다.

편찬체제의 특이성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면에서다. 기존의 사지 편찬은 건물장전의 연가, 소유토지의 규모, 토지사금의 배정 등 사찰의 외형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해인사지』는 사찰의 문화적 진승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밝히는 노력이 경주되어 있다. 살아있는 해인사의 숨결을 찾으려는 흔적이 뚜렷하다.

때문에 이책으로 인해 앞으로 사지편찬은 뚜렷한 한 획을 그어, 사찰의 연혁을 기록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불교사, 사원건축, 사원경제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전망이 높다.

인영정  
(사법대 역사교육과 교수)

### 문화대

## 새로 나온 책

◇침묵의 산...강원도 사북과 고한, 태백지역의 탄광촌을 배경으로 수십개 탄광에서 일어난 파업농성 과정을 통해 불모지 상태에서 오늘의 평안지역이 있기까지의 수많은 숨은 이야기와 그 속에 녹아든 노동자들의 애환과 환희를 작가 안재성 특유의 간결하고 군더더기없는 생생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창년사·4천5백원)

◇빛으로 쓴 열의 노래...장자와 더불어 노장사상으로 통하는 노자 도덕경의 원문과 옮김, 풀이를 겸비한 에세이집. (도서출판 무에·6천3백원)

### 공연 안내

◇사랑꽃대작전...마음은 아직도 사랑을 계속하며 달은 밝건만...요즈음 젊은이들과 흡사하면서도 결국 진실한 사랑만이 좋은 결말을 맺는다는 교훈적이면서 오락적인 내용이다. 3월31일까지 오후4시, 7시, 미리내 소극장. 745-8535

### 전시회

◇설봉선님 도예전...불교방송 포교사업기금 및 불우 청소년들기...3월28일부터 4월4일까지. 불교방송국(2층). 705-5301-4

◇다시 불러보는 그대 이름... 이 소설은 탄광지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광부들의 이야기이다. (살림터·4천2백원)

## 무설탕검은 역시 해태-

# 해태

## "없어서 좋습니다"

해태 無설탕검-알파-노노, 유카리스

왜 무설탕검이 좋은가?  
설태신 솔비틀을 사용—  
• 중치 NO: 구강미생물 활동을 억제해 충치에 무관합니다.  
• 당도 NO: 인슐린이 필요없는 신진대사로 당도병에 무관합니다.  
• 미탄 NO: 설탕에 비해 60~70% 저당미, 체내에 흡수가 적습니다.  
• 청량감: 솔비틀의 용해력이 입안온도를 낮춰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날씬한 숙녀를 위해 새롭게 태어난 알파-노노검  
• 식섬유: 식이섬유를 첨가, 변비를 예방하고 언제나 날씬하게  
• 후로랄함, 페퍼민트향:  
여성스러운 후로랄함, 상쾌한 페퍼민트향 2가지

입안을 깨끗하게, 목까지 시원하게-유카리스검  
• 후로노노이드: 녹차추출물인 후로노노이드 성분으로 입냄새를 말끔히  
• 유카립투스: 유카립투스 성분의 휘산작용으로 목까지 시원하게

\*희망소비자가격: 200원

# 등록금 협상 물건너가지 않았다

## 학생측 총선 이후 전학대회·공청회 통해 적극대응

재단이사장실을 지난 12일 침기가능하며 학생측은 재단혁신을 통한 학교발전의 장단기적 마스터 플랜제시 및 일방적인 19%인상을 철회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등록금협상(이하 등록금)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에는 제24대 총학생회취임식 '재단혁신과 등록금협상'을 주제로 한 '등록금협상'을 위한 등록금 전진대회'가 학생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대회를 마친후 2백여명의 학생들이 분반단위로 돌아가려 하자 조영(경영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각자실장들은 '등록금문제와 관련된 학교당국·학생간 공청회를 열어 모든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된 후 총학생회와 기획조정실이 일시적으로 접충을 당하기도 했지만 곧 철회했으며 재단 이사장실과 사무국장실이 접충해 지금까지 능성이 진행중이 있는 상태이다.

등록금 납입연기부족을 지난 9일 철회하면서 등록금납입의 발전적인 해법을 통하여 총학생회위원회 이후 협상을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전개되는 중에는 별다른 협의안을 찾지 못한 채 재차리 걸음을 하고있는 상태이다.

이들 그동안 진행되었던 협상이 각단위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수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충 간부중심 일원들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모든 사업은 승리하기 힘든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개된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동일한 안전이 오기는 공방전의 연속이었다.

7차협상 지난 14일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됐다. 논의사항은 △등록금의 제도화 약속 △예산결산자료의 공개-등록금협상에서 92년 예산화정안은 공개할 수 있다. △예산결산자료-최소한 10억원의 예산확보 가능,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공개할 것 △학년 기준제 원칙-학교당국은 수용 거부 의사 표명 △인상률-2% 정도는 인허할 수 있지만 환율은 불가능하다. 학교·학생이 공동기금관리하자고 제안해 학생측이 반대 의사 표명 △민주적 학사행정-등록금과 별도로 교과과정위원회의 위상을 보장 △복지요구인 수용-각부서와 교과과정에서 제기한 복지안을 적극 검토중 등이다.

6차협상 지난 9일 진행됐다. 논의사항은 △등록금 납입연기부족을 지난 9일 철회하면서 등록금납입의 발전적인 해법을 통하여 총학생회위원회 이후 협상을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전개되는 중에는 별다른 협의안을 찾지 못한 채 재차리 걸음을 하고있는 상태이다.

5차협상 학생측은 지난 2일 등록금의 제도화 약속, 신규교수채용에 있어서의 학생의사 존중, 시국관련 미등록 제정상의 불합치 등을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등록금 협상은 학교당국과 학생측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있으나, 거듭되는 소모전의 양상을 띠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조기최종정실장은 "학사실정을 감안해 조속히 예산안을 확정, 오는 23일을 전후해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교과부에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시시때때로 말하고 있다. 학교당국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납입률이 98%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7차협상에서 논의된 재단결정금의 10억원 증액과 등록금 인상률의 인하조정은 학교측이 학생측의 요구안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몇가지 단편적인 복지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짐작케 했다. 하지만 총장이 확인한 재단결정금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측의 입장은 "근본적인 재단혁신을 통한 재단결정금의 증액과 학교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정리는 명백한 패배일 뿐"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해 오는 18일 오전 11시 8차협상은 힘든 심리전이

될 것 같다.

또한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서울캠퍼스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등록금 전제에 올바른 등록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역이 높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등록금의 조정을 등록금 인상률 인하와 단위복지인, 수용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결을 통한 재단혁신을 정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경주캠퍼스의 요구안을 보면 △학생회관 증축 △고시학사 건립 △노년강당 설치 △전자도서관 시설 확충 등이다.

이처럼 등록금이 계속 진행되면서도 실질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것은 제24대 총학생회가 올바른 정책생산을 위한 상태에서 협상을 전개해 왔던 것이지 등록금 협상에서 이렇듯 학생측이 기만하지 않는다는 기인하고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미 '등록금 물건너 갔다'는 논리가 무성해 그동안 일어난 학생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이 피리피리였는지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다. 지난 15일 운영위를 통해 등록금의 방향을 오는 24일 총선 이후로 전제시키면서 각과 단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통한 단위복지요구인 수렴, 오는 26일 상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및 3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지지를 통한 대중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또한 학내 대학원생 및 재원노조의 공동연대투쟁을 모체, 재단혁신을 통한 재단결정금의 확충 및 등록금 교육 재정의 투명성 확보까지 승화시켜내는 것이 이번 협상의 최대과제로 보여진다.

노조 총회, 임금협정 채택 23일 학교당국과 1차 협상

직원노조(위원장=이진배·경상대 교학계장)는 지난 12일 전체적인 노조총회를 동국관(L101)에서 열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요구안을 채택, 오는 23일 학교당국과 1차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단체협약에 추가된 것은 '행정의 6급은 주임대리로 보한다'이며 지난 17일 학교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고 7일후인 23일 협상에 들어간다.

이위원장은 "등록금 인하시 학교측이 이것을 빌미로 임금인상을 억제할 것 같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단결정금의 문제"라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학교측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외국어교육원 LAB실 개방 취업대책으로 타자실도

경주캠퍼스 외국어교육원(원장=이석장·영문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수업의 시간강화와 언어능력향상을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Lab실을 개방한다.

한편 과목은 영어(Michigan Action English), 일어(NHK 송청취·시사일본어회화)로 구성돼 있으며 개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5~6시까지이다.

또한 타자실습실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실습실을 개방한다.

도서관 타자실습실을 사용하면 연습지 및 소모품구입비 1



◇무역학과 학생들이 지난 13일 총학생 회의의 동성을 벌이고 있다.

## 무역학과 교수채용관련 총장면담 학교당국 책임성 있는 해명 요구

무역학과 학생 50여명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총장실을 집회하고 신규교수채용 연기결정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명을 요구하며 시한부 농성을 벌였다.

집회 농성 1시간 후인 오후 4시경 민병천 총장, 김인제(경제학) 교수처장, 과교수들이 참석 한 가운데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과정에서 학생측은 교수채용시 수계종과 관련된 학교측 관리자의 잘못된 사무처리와 있었고 이때문에 무역학과가 반종단학과로 몰려야 하는 면에 회색을 각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대표들은 위사행들에 관한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민총장은 농성중이던 학생들에게 두루뭉개 4가지항을 답변할 것으로 해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이 답변의 주요내용은 △교

수채용과정시 무역학과가 만능 기교학과로 오인받게 된 것은 사실부근이거니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학교측이 본체의 소지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교수채용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등이다.

한편 무역학과는 총장의 해명답변이 있는 이후 학내외각과 보와 도서관 유리창에 붙여진 메모를 해제하고 자진 해산했다.

회(회장=정연환·행정4)는 단대외장 선거를 오는 25, 26일 양일간 단과대별로 실시한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오는 20일에는 1차모임을 가진다.

또한 총대의원회는 대의원등록을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 총1백30명중 97명의 등록을 받았다.

각 단대별 등록상황을 보면 인문대가 34명, 자연대 24명, 상경대 27명, 법정대 10명, 의과대가 2명이며, 한의대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75%의 등록률을 보였다.

외국어교육원 LAB실 개방 취업대책으로 타자실도

경주캠퍼스 외국어교육원(원장=이석장·영문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수업의 시간강화와 언어능력향상을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Lab실을 개방한다.

한편 과목은 영어(Michigan Action English), 일어(NHK 송청취·시사일본어회화)로 구성돼 있으며 개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5~6시까지이다.

또한 타자실습실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실습실을 개방한다.

도서관 타자실습실을 사용하면 연습지 및 소모품구입비 1

외국어교육원 LAB실 개방 취업대책으로 타자실도

경주캠퍼스 외국어교육원(원장=이석장·영문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수업의 시간강화와 언어능력향상을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Lab실을 개방한다.

한편 과목은 영어(Michigan Action English), 일어(NHK 송청취·시사일본어회화)로 구성돼 있으며 개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5~6시까지이다.

또한 타자실습실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실습실을 개방한다.

도서관 타자실습실을 사용하면 연습지 및 소모품구입비 1

외국어교육원 LAB실 개방 취업대책으로 타자실도

경주캠퍼스 외국어교육원(원장=이석장·영문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수업의 시간강화와 언어능력향상을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Lab실을 개방한다.

한편 과목은 영어(Michigan Action English), 일어(NHK 송청취·시사일본어회화)로 구성돼 있으며 개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5~6시까지이다.

또한 타자실습실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실습실을 개방한다.

도서관 타자실습실을 사용하면 연습지 및 소모품구입비 1

학복위 우정장학세칙 개정 최소 10인이상 추천서 필요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권혁신·입학4)가 92년도부터 우정 장학금 지급 세칙을 개정하여 오는 27일부터 우정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각과별로 신청해 지급한 우정장학금은 학생의 생활, 생활공통제 건설이라는 목적에 벗어났다는 평가 속에서 스제확충명서 1부 스프레드 10인 이상의 추천서 스우정 장학금 신청서를 구비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단위복지주체 연선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우정장학금 세칙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자는 최소10인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2학기 부업 알선율 82.3%

91학년도 2학기 아르바이트 현황이 아르바이트 희망자 2천5백68명 중 2천1백13명으로 집계돼 82.3%의 알선율을 보였다.

이를 남·여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천5백68명 중 1천5백90

전국축구대회 출전

제40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본교 축구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에서 같은 13조에 속해 있는 원도청부와 경기를 갖는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효창구장에서 호남대와 대결을 벌인다.

### 어디에도 내걸어야 하나

○누구야, 누가 또 말도 없이 자꾸 플래카드를 걸어 가느냐!

뿐만 앞을 자 동여리 선전 및 여러 알림내용의 플래카드가 고정적으로 걸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나무에 매어 놔는데, 다음날 철폐되면 흔적없이 사라지기도 해 알아본 즉, 학교당국이 나무에 매어 놔다

### 맥주병 깨며 활극 연습하다보면 학기말쯤 주인공 될터(?)

의 식사문화는 땅에 내뽐겨지지 오래래는데 국단적 개인주의가 생활공통체인 대학의 문화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 자기가 먹은 자리라도 정리하고 나가는 약간의 배려만 있어도 될 문제인데도 그것마저 생략하지 못하는 일부 양계족을 뒷받침해 어느 학우 활 "저런 친구는 식당에서 무료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역형에 처할지 어쩔지" 중입니다. 밥을 한술, 그리고 국물 한방울에도 1일 봉사를 시켜보면 요런 일 없어야 할까.

### 홍내반과 주인공이 될까

○배우 김요일 후남 근처에는 활극 엑스트라를 갈망하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개성을 갖는 신입생연회와 동문회가 걸친 지난 13

### 엑스트라 홍내반 낸다면 학기말쯤 주인공 될터(?)

2층부터 있는데 그나마도 심심하면 가끔씩 밤에 불이 켜지지 않아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여학생들의 불안이 여간 아니다. 새학기를 맞아 동아리모임 등 분주하게 일하다보면 아쉽 수 없이 방과후까지 늦게 학생회관에서 지내기가 마련인데.

이에 오락락 내리락 해본 신경적인 한 여학생은 "제때정리된 시기는 것도 좋지만 달밤에 그것도 학생회관 안에서 제조시키는 건 너무합니다"요.

### 맥주병 깨며 활극 연습하다보면 학기말쯤 주인공 될터(?)

의 식사문화는 땅에 내뽐겨지지 오래래는데 국단적 개인주의가 생활공통체인 대학의 문화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 자기가 먹은 자리라도 정리하고 나가는 약간의 배려만 있어도 될 문제인데도 그것마저 생략하지 못하는 일부 양계족을 뒷받침해 어느 학우 활 "저런 친구는 식당에서 무료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역형에 처할지 어쩔지" 중입니다. 밥을 한술, 그리고 국물 한방울에도 1일 봉사를 시켜보면 요런 일 없어야 할까.

### 맥주병 깨며 활극 연습하다보면 학기말쯤 주인공 될터(?)

의 식사문화는 땅에 내뽐겨지지 오래래는데 국단적 개인주의가 생활공통체인 대학의 문화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 자기가 먹은 자리라도 정리하고 나가는 약간의 배려만 있어도 될 문제인데도 그것마저 생략하지 못하는 일부 양계족을 뒷받침해 어느 학우 활 "저런 친구는 식당에서 무료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역형에 처할지 어쩔지" 중입니다. 밥을 한술, 그리고 국물 한방울에도 1일 봉사를 시켜보면 요런 일 없어야 할까.

### 맥주병 깨며 활극 연습하다보면 학기말쯤 주인공 될터(?)

의 식사문화는 땅에 내뽐겨지지 오래래는데 국단적 개인주의가 생활공통체인 대학의 문화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 자기가 먹은 자리라도 정리하고 나가는 약간의 배려만 있어도 될 문제인데도 그것마저 생략하지 못하는 일부 양계족을 뒷받침해 어느 학우 활 "저런 친구는 식당에서 무료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역형에 처할지 어쩔지" 중입니다. 밥을 한술, 그리고 국물 한방울에도 1일 봉사를 시켜보면 요런 일 없어야 할까.

### 맥주병 깨며 활극 연습하다보면 학기말쯤 주인공 될터(?)

의 식사문화는 땅에 내뽐겨지지 오래래는데 국단적 개인주의가 생활공통체인 대학의 문화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 자기가 먹은 자리라도 정리하고 나가는 약간의 배려만 있어도 될 문제인데도 그것마저 생략하지 못하는 일부 양계족을 뒷받침해 어느 학우 활 "저런 친구는 식당에서 무료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역형에 처할지 어쩔지" 중입니다. 밥을 한술, 그리고 국물 한방울에도 1일 봉사를 시켜보면 요런 일 없어야 할까.

## 새롭게 출발하는 그대 젊음에게, 희스!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다. 또한 내일은 오늘의 답답이 아니다. 젊음이란 늘 새로운 도전, 늘 신선한 발견 /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그대 젊음에게 진한 감성의 캐주얼 슈즈, 희스.

# Hatoks

■ 대리점 개설문의 희스사업부 (02)515-2814-8

**전국대점**

- 서울지역: 양재점 (02)773-3143, 강남점 (02)739-1041, 신사점 (02)515-2919, 명동점 (02)775-7164, 강남점 (02)971-3797, 강남점 (02)420-9441, 강남점 (02)594-6860, 강남점 (02)521-1064, 강남점 (02)569-4889, 강남점 (02)442-7825, 강남점 (02)536-4240
- 부산지역: 부산점 (02)471-1235, 부산점 (02)464-6765, 부산점 (02)947-0564, 부산점 (02)924-7985
- 대구지역: 대구점 (02)618-1000, 대구점 (02)471-1235, 대구점 (02)464-6765, 대구점 (02)947-0564, 대구점 (02)924-7985
- 인천지역: 인천점 (02)471-1235, 인천점 (02)464-6765, 인천점 (02)947-0564, 인천점 (02)924-7985
- 광주지역: 광주점 (02)471-1235, 광주점 (02)464-6765, 광주점 (02)947-0564, 광주점 (02)924-7985
- 대전지역: 대전점 (02)471-1235, 대전점 (02)464-6765, 대전점 (02)947-0564, 대전점 (02)924-7985
- 충청지역: 충청점 (02)471-1235, 충청점 (02)464-6765, 충청점 (02)947-0564, 충청점 (02)924-7985
- 전라지역: 전라점 (02)471-1235, 전라점 (02)464-6765, 전라점 (02)947-0564, 전라점 (02)924-7985
- 경남지역: 경남점 (02)471-1235, 경남점 (02)464-6765, 경남점 (02)947-0564, 경남점 (02)924-7985
- 제주지역: 제주점 (02)471-1235, 제주점 (02)464-6765, 제주점 (02)947-0564, 제주점 (02)924-7985

**대구지역**

- 대구점 (02)618-1000, 대구점 (02)471-1235, 대구점 (02)464-6765, 대구점 (02)947-0564, 대구점 (02)924-7985

**부산지역**

- 부산점 (02)471-1235, 부산점 (02)464-6765, 부산점 (02)947-0564, 부산점 (02)924-7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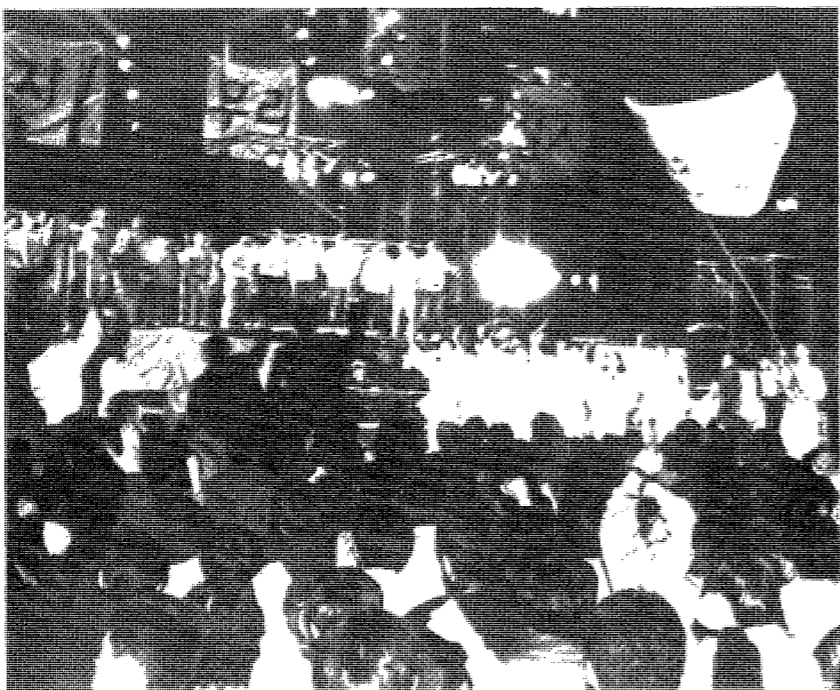
# 노래·풍물·춤 한데 어우러진 '봄의제전'

### '참 민주'의 봄을 여는 대합창 '92 자 우리 손을 잡자' 공연을 보고

'참 민주'의 봄을 여는 대합창 '92 자 우리 손을 잡자' 공연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공동의장=강연균·화가) 주최로 지난 3월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경희대학교 노년극장에서 열렸다.

90여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지난 2월초부터 준비해 온 이번 공연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패 꽃다지, 서충현 노래단, 민요연구회, 정태훈, 김영남, 극단 현장, 풍물국개살판, 민속춤대, 민속춤대, 풍물패 등을 합쳐 참가해 관객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부르는 대합창의 자리였다.

앞줄을 비롯해 총 4부로 구성된 '자 우리 손을 잡자'는 1부 '우리네 살림살이', 2부 '지난 세월 돌아보니', 3부 '분단과 독재를 넘어,



◇이번 공연은 각종 문예단체들이 참가해 관객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부르는 대합창의 자리였다.

## 정치권 행태 신랄하게 꼬집은 풍자극 호응 커 젊은 유권자층 허무·냉소주의 극복과 총선적극참여 유도

4부 '가자/ 승리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노래, 춤, 풍물 등의 나열식이었던 지난 90, 91년의 공연과는 달리 여러 장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제에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인 이번 공연은 1부에서 극단 현장의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극 사이에 정태훈 씨가 '배반의 생애' '아,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엮어 '희망의 노래'를 불러 소위 정치권(?)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이 2부에는 '끝내 살리라' '전 노엽 진군가' '동지여 세계' '누가 나에게 이길' 등을 불렀으며, 모두가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아, 민주 정부'라는 노래로 민주정부수립에 대한 열망을 한껏 고조시켰다.

3부에서는 '새야 새야' '나치당 환난도' '조국과 청춘' 등을 불렀으며

4부에서는 '부쟁이의 물결' '단절 투쟁가' 등을 부른 후 관객과 출연진 모두가 '아 민주 정부'를 다시 부질껏 부르며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올바른 투표행사를 다짐했다.

특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삶의 노래 예술원과 노동자 노래단이 합쳐진 꽃다지와 청년학생들의 정서를 대변하고자 하는 서충현 노래단이 '신선향' 그자제로 대중에게 첫선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6공의 비리를 폭로하고 앞으로 대중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 표출 및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격려하는 목적이 있다'는 정태훈씨의 말처럼 선거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비록 잔뜩 찌푸린 회색빛 하늘을

위로 했지만, 모두가 어깨동무하고 정태훈씨 노래에 맞춰 불을 갈라보는 모습은 마치 봄의 노을을 연상케 했다.

케다가 전노협 것들이 오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전노협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속에서도 지난 3월7일 해태제과에서 작업하던 김영미양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해 정국화 사교경위나 작업 환경개선으로 노력하지 않는 회사측을 꼬집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왠지 착잡한 심정까지 들게 한다.

장장 5시간의 공연이 끝나고 제각기 돌아가는 시민들, 무리를 지어 단결 투쟁가를 부르는 학생들 모두가 가슴속에 하나씩은 새겨 돌아

가리라 생각한다.  
"바로 지금 우리는 손을 잡을 때"라고 느끼며... (續)

## "우리 새내기잔치 이렇게 해요"

긴 겨울을 깨치고 다시 일어선 이 봄처럼 신선한 새내기들의 환영회가 요즈음 한창이다.

이에 자칫 잘못하면 놀고 마시는 분위기로 빠지기 쉬운 신입생 환영회를 대중사업의 한 일환으로 이끄는 사업대를 찾아가 보았다.

사업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신입생 환영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먼저 16일에는 학우들에게 1년 사업을 공개하고 학생회의 모든 역할을 집중시켜내는 자리인 사별대출발식을 가졌다.

이어 17일에는 5시 중강당에서 원시시간가량 새내기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각과 노래패가 민중가요 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로 연합 공연을 가졌다.

18일에는 신입생 환영회의 하이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새내기들의 숭수자랑 새내기 연극 공연대회가

있다.

7개과가 건강한 내용에 한해서 자유로운 소재와 주제와 선택해 신입생 전원이 한가지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모두 참여한다는 원칙아래 행해지는 이번 연극은 가정교육과가 '출향전+심정전' 국어교육과가 '홍실출현' 교육학과가 '신 금수회 의뢰' 수학교육과가 '내마음 속의 사랑의 랩' 역사교육과가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지리교육과가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체육교육과가 '행이의 일기'로 새나기답게 소재가 제각기 다양하다.

각 과별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 보다 단체 학생회의 집중과 결속을 높여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학우들과 함께하는 대중사업인 통해 신입생을 맞는 것이 필요한 매인 것 같다.

(문화부)

## 문/화/시/평 세대차·베끼기와 복사기와 컴퓨터

벌써 몇해 전의 일이다. 시내 모대학의 국어학 강의를 맡고 있던 날에 방에 틀렸더니 책상 위에는 필기 용구 대신에 컴퓨터 한대만이 멍하게 놓여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답인즉 요즘 사람들은 이 컴퓨터 한대 만으로도 용도에 맞는 '메뉴'에 따라 한글은 물론 불어면 불어 영어면 영어, 필요에 따른 활자의 자유로운 선택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입력에 의한 기억과 새로운 장치가 타자 하나로 일대일 가능하다는 것이다.

떨어지는 실명을 곁들인다. 물론 성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첫장부터 끝까지 노트에 옮겨야만 했고 그 양이 문제되지 않았다. 쪽과 행이 같아야 어디다 눈문을 쓸때에도 인용과 주석이 가능함으로 쪽수와 줄이 같게 옮겨 쓰자니

서 필록한 화귀본의 노트가 몇권 남아있다.

이것들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그때 쓰면서 감동하고, 쓰면서 의욕이 이해하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회고해 보면 그 시대로서는 가장 값이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 싶다.

지정도 불가(佛家)에서는 수신과 수도를 위해 집안 자식들에게 부모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 '은중경(恩重經)' 한권을 베껴 쓰게 한 다가가 또 이 밖에도 사문(寺門) 안에서는 '반야심경(般若心經)' 등 많은 불교경전들을 베껴 쓰게하는 습관이 있다. 이것은 기억과 기



## 가치기준 변화에 무조건 순응은 곤란

이 컴퓨터 한대로서 모든 학습자로 입력은 물론, 종래와 같은 카드 작성과 그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명함' 한장과 같은 크기의 '디스크' 한장에도 원고지 수천장을 필요로 하는 박사학위 논문 몇권이 수록 될수 있으며, 이러한 '디스크' 한 박스만 가지면 편린 서적을 가진것이나 전매했다고 한다. 실로 적체지감과 세대차를 통감케하는 말이다.

이제 서른 것넘은 팔에가 갖 태 어났을 때와 그뿐만 아니라 대학을 나와 학문의 길에 접어들 무렵, 우리 세대들은 도시편이나 시승앞에서나 화귀본이라도 대하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목이 시고 마디가 부르르며 눈에는 핏발이 서곤 하였다.

기억을 입력하는 컴퓨터 외에도 오늘날 모든 기록들을 한꺼번에 재현하는 복사기의 출현은 이 또한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네 아버지들의 세대는 어땠을까. 지금도 내집 오랜 서가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직접 한지를 접어 필묵으로 필사한 그 예전 집안 후손들의 교양도서였던 '중용선승(童蒙先賢)'을 비롯해서 '자치통감(資治通鑑)',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 많은 한적(漢籍)들의 필사본이 떡과 기름 때에 찌든채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내가 대학시절 겨우 입수해

록 이전의 자기 수행에 속하는 일이다.

어쨌거나 전자는 짧은 시간, 작은 노력으로 순간적인 많은것을 얻는데 있고, 후자에서는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경우 되더라도 오래 마음에 담고 감동하는데 그 뜻이 있어 왔다.

이러한 모든 문화와 문명 발달은 가치기준에도 큰 변화와 영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무조건 순응해가야만 인간성 상실과 사회의 차원에서 대대적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다.

장 한 기  
(예술대 연영과 교수)

### 바람 부는 날이면

유학의 '바람 부는 날'이 먼 압구정동에서 가야 한다는 거북한 시의 분석이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머스런 시집이다. TV광고, 영화, 그리고 특히 대학생에게서 오가는 대화속의 비어와 속어가 여파없이 시를 장식하고 있다. 어찌보면 시라고 여기기에 너무 우스꽝스러워 그저 낙서장 정도로 생각할 만큼 예술성이 없어도 보인다. 그러나 이 시집이 출판되면서 젊은층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꽤 팔리는 시집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왜 유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엘리트·부유층으로 집중된 압구정으로 내몰았을까. ▲압구정이 한 동네의 이름을 땔어넘어, 행정구역의 선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인식된 것은 80년대 초반이다. 오늘날 압구정은

표면적으로 사회적 신분상승과 부의 상징으로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극단적 이기주의, 현실에 대한 냉소주의로 치닫고 있는 젊은 층의 사고양식이 내포되어 있다. 즉 첫머리, 첫장면으로 진행되는 요즘의 극단적 사랑표현이나 머리를 기르고 청바지를 찢고 다니는

제가 산적해 있고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14대 국회의원 투표일을 앞두고 총선대책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적극 유도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동학의 교정은 세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학생들의 모습이 많을 뿐 조용하다. 유하의 시집 제목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인 김중배씨는 한 일간지칼럼에서 요즘의 우리를 가르쳐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는 젊은이들이여'라 했다. 무엇이 우리를 최첨단 향락의 거리, 압구정으로 내몰고 있는가. 시인 유하는 '압구정'연락 10편을 통해 하나대를 파괴해가며 오늘도 압구정의 성역을 넓히고 있는 우리를 냉소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동학 교정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포자기적 전망파탄을 조장하는 세찬 봄바람을 불러오고 있지는 않은가. (續)

### SAM YANG GROUP

## 강의실에선 칸트의 철학에 심취한다 그러나 수업뒤의 탈춤 동아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젊은이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70여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장품 등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속에 내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식회사삼양사 (棉, 糖, 飼料, 水産, 精密化学) ● 삼양중기주식회사 ● 삼일포도주식회사 ● 삼남유리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 대한산업(미)비바 ● 삼양종합연구소 ● 양정회 ● 삼양대학